

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

- 작년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172억원의 지원금 지급
- 높은 수익률, 수수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 눈여겨볼 필요

근로복지공단(이사장 박종길)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이하 ‘푸른씨앗’)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.

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(91.7%)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(23.2%)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.

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'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(최저임금의 130%)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'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%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.

예를 들어 '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'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'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%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,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%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.

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('24년 누적 14.7%)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('25년 가입시),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푸른씨앗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천명,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하였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서 의미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.

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“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”면서 “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푸른씨앗 가입 방법,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661-0075) 또는 홈페이지(pension.comwel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「복권위원회 복권기금」으로 조성·지원합니다.

담당 부서	복지연금국 퇴직연금계획부	책임자	부 장	김완석 (052-704-7361)
		담당자	팀 장	류해석 (052-704-7362)



가. 사업개요

□ 추진 배경

- 퇴직연금 가입률*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 ('22.4.14. 시행, '22.9.1. 본격 운영)

* (300인 이상) 91.7% / (30~299인) 78.7% / (30인 미만) 23.2%

□ 사업 내용

- (정의) 중소기업(30명 이하) 사용자·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

- (운영) 사용자가 부담금(임금총액의 1/12 이상)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→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(자산운용기관 위탁)

*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(pooling) →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

- (제공 서비스) 재정지원*, 가입절차 간소화**, 수수료 면제('25년 가입시 3년간)

* (지원요건)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% 미만인 근로자('23년까지는 120% 미만)
(지원수준) ①(사업주)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%('22년부터 계속)

②(근로자)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%('24년 신설)

(지원한도) 지원금별로 "1인당 최대 27.3만원, 1개社 당 최대 30명, 최대 3년간 지원"

※ 사업주·근로자 재정지원 지원기간 2년 연장 ('25.8월까지 가입자→'27.8월까지 가입자), 관련 예산 '25년 예산에 반영 (204억)

** 표준계약서 체결(사용자 ↔ 공단)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

- (의사결정) 기금제도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* 구성·운영

* 자문위원회(3개): 투자전략위원회, 리스크관리위원회, 성과평가위원회

- (자산운용) 전담 자산운용체계 구축·운영, 유동성 자금은 직접 운영 병행

* 전담운용기관(2개소): 미래에셋증권, 삼성자산운용 / 주거래은행: 우리은행

나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실적

- (가입실적) '24.12월말 사업장 수 23,233개소, 가입자 수 108,515명 가입하여 전년 말 대비 각각 69.7%, 67.8% 증가함

구분	'22년	'23년	'24년
사업장 (개소)	2,443	13,691	23,233
근로자 (명)	9,650	64,681	108,515

- (적립금) 부담금 수입 10,366억원(부담금 9,744억원 + 수익 622억원), 지출 1,765억원으로 '24.12월말 기금 잔액은 8,6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1.7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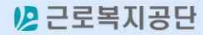
구분 (단위:억원)		'22년	'23년	'24년	합계
부담금 수입	납입금	325	4,592	4,826	9,744
	손익	0.8	215	406	622
지출		2	398	1,365	1,765
적립금		324	4,734	8,601	-

- (수익률) '22.9월 기금운용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.67%이고, '23년 수익률 6.97%, '24년 수익률 6.52% 보임

구분	'22년	'23년	'24년
월말 기준가	1,006	1,077	1,147
수익률 (%)	2.45	6.97	6.52

- (재정지원) '24년 사업주 15,844명에 대해 92억원, 근로자 51,584명에 대해 80억 지원, 사업주 평균 지급액은 579천원으로 전년 대비 59.5% 증가

구 분		'22년	'23년	'24년
평균 지원액 (천원)	사업주 (억원 / 명)	123천원 (1.4 / 1,124)	363천원 (29 / 8,070)	579천원 (92 / 15,844)
	근로자 (억원 / 명)	-	-	156천원 (80 / 51,584)



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



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'퇴직연금기금제도'



장점 1

사업주는 비용절감!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!
재정지원 20%

월 273만원(최저임금 130%)미만 근로자에 대한
사업주 부담금의 10%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!

- 1인당 재정지원 : 최대 27만 3천원
- 지원 근로자 수 : 최대 30명까지
- 지원기간 : 3년
- 지원금액 : 1년 최대 819만원, 3년 최대 2,457만원

장점 2

수수료 면제로 사업주는 비용절감 혜택을 추가로!
수수료 0원

'25년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!

(연간 수수료 기준, 단위 : 원)

적립금	1천만원	5천만원	1억	5억
푸른씨앗 (기준 0.2%)	0원	0원	0원	0원
타사 퇴직연금 (평균 0.6%)	6만원	30만원	60만원	300만원

장점 3

안정적인 수익률!

'24년 연 수익률 6.52% 누적 수익률 14.67%

('22년 9월 ~ 24년 12월)

※ 푸른씨앗은 OCIO 체제로 전담운영기관(삼성자산운용·미래에셋증권)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

전담운영기관

No1. 공적연금 운영기관
삼성자산운용

글로벌 연금 전문가
MIRAE ASSET
미래에셋증권

장점 4

'표준계약서'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 가능
쉽고 간편한 가입절차



하! 퇴직연금규약서
작성·신고 의무 면제!



들! 홈페이지를 통한
비대면 가입 프로세스!